

전북도, '아·태 마스터스대회' 유치 박차

2022년 개최...50세 안팎 중·장년층 생활체육 국제대회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대...정부 지원 받아 유치활동 전력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를 유치한 전북도가 '제2회 2022년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이 마스터스 대회는 중·장년층의 아시아·태평양 올림픽으로 불린다. 참가연령이 50세 안팎으로 기존 엘리트 체육 중심의 국제대회와는 다른 생활체육 분야 국제대회다.

도는 국내외 대규모 국제행사가 지역경

제에 보탬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승인을 얻어 대회 유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북도 유치홍보단은 지난달 첫 대회가 열린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지역 농식품 판촉을 겸한 유치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달 12일부터 전북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시설을 활용하면 별다른 경기장 신축 없이 대회 개최가 가능한 점을 정부에

알릴 계획이다. 2022년 아·태 마스터스를 유치하면 전북에서는 올해 전국체전을 시작으로 2019년 전국소년체전, 2020년 생활체육 대축전, 2021년 프레젠퍼리대회,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까지 매년 대규모 행사가 열리게 된다. 마스터스 대회는 선수당 20만원가량의 참가비를 내고 가족·지인과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숙박·음식·운송 부문 등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마스터스 대회는 월드컵대회와 대륙별 대

회로 나누어 개최되는데, 1985년 제1회 캐나다 토론토에서 월드컵대회를 시작으로 지난해 뉴질랜드 대회가 9회째이다. 대륙별로는 유럽, 팬 아메리카, 아·태 마스터스 대회가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제공인 경기장 신축과 사후 활용이라는 문제로 항상 예산 낭비의 지적이 있는 엘리트 대회와 달리 마스터스 대회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숨겨진 보물' 같은 대회"라고 설명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교도소, 중학생들에 준법교실 운영

호남중학교 학생 50여명 교도관 직업 등 진로체험도

지역 중학생 50여명이 교도소를 찾아 진로체험과 준법교육을 받았다. <사진> 정읍교도소는 최근 호남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맞아 진로 체험과 준법교육의 고양을 위해 교도소 체험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학생들은 정읍교도소 준법교실에서 교도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설명

듣고 수용자의 생활상 등에 대해 교육 받았다. 이들은 또 수용자가 생활하는 대강당과 생활거실 등을 둘러보며 준법교육에 대한 생생한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박삼재 정읍교도소 소장은 "자유학기제를 맞아 학생들이 직접 교도관을 만나보고 교도소 내 거실 등을 돌아보며 간접체험을 함으로써 준법교육을 위한 인성교육을 위해 친근한 시설로 개방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북도는 지난 5일 익산 종합운동장에서 2018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기했다. <전북도 제공>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익산 전국체전 성공개최 종합상황실 현판식 열려

제99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5일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종합상황실 현판식'이 열렸다. 종합상황실은 체전이 열리는 동안 매일 분야별 현장 상황과 대회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선수 부상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김승일 전북도 행정부지사 "다가오는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컨트롤 타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협업부서 관계자들이 물심양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체전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전국장애인체전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익산 등 전북 14개 시·군에 마련된 경기장에서 열린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국내 4대 종교인들의 화합·상생 염원 전주서 '세계종교문화축제' 오늘 개막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국내 4대 종교의 화합과 상생을 염원하는 '2018 세계종교문화축제'가 8일 전북 일대에서 시작된다. 전주 풍남문과 경기전 광장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축제는 세계종교평화협의회 주관으로 익산, 김제, 완주, 전주에서 '일수(Up Spirit)'를 주제로 나흘간 열린다. 이번 축제는 전북의 다양한 종교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이웃 종교의 생활과 문화 예술의 체험 및 이해를 통해 종교 간 상생과 나눔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을 뒀다. 행사 첫날 전통성당에서 종교 음식을 맛보고 둘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전주교와

원불교가 제작한 영화를 볼 수 있다. 더불어 천주교와 불교가 공동으로 명상시간도 마련했다. 4대 종교별 특색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종교 열린 마당도 눈여겨볼 만하다. 개신교는 초창기 선교사 마티 잉골드의, 원불교는 박정수 교무의 삶을 각각 뮤지컬과 영화로 소개한다. 천주교는 신유박해 순교자들의 신앙과 삶을 재현하는 마당 창극을 선보인다. 4대 종교의 지속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수도자·수행자·성직자들의 합창을 감상할 수 있는 이 행사의 개막식은 8일 오후 6시 40분 풍남문에서 열린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시, 시정공약 실천 '주민배심원단' 40명 위촉

공약사항 23건 분임별 토론회

정읍시가 공약사항 실천을 통한 시민 행복도 향상을 도모한다. 정읍시는 시정 공약실천 과정에 시민 의견 반영을 위해 지난 5일 주민배심원단을 위촉했다. 시는 이날 대회의실에서 유진섭 시장과 김기홍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본부장, 주민배심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주민배심원단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2019년 10월까지 활동하게 되는 주민배심원단은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정 변경된 사안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도 정책의 조정이 필요한 공약을 심사하고 실천을 위한 아이디어와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권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사탐방 드라이브 길(이팝나무길) 조성, 실버영화제·상춘곡문학제 확대, 태안·고부 동헌 복원, 장명동 주민센터 이전, 시민 체육시설 사용요금 개선 등 총23건의 공약사항에 대한 분임별 토론회와 심의를 진행했다. 한편 주민배심원단은 한국메니페스토본부에서 시민의 대표성과 참여 기회의 평등,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 등을 위해 만 19세 이상 정읍시민 중 성별·연령별·직업별 인구 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과학적 표집 방법)을 통해 최종 선발됐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시수협, 선유도 위판장 개장...어가 소득증대 기대

군산시수협은 지난 4일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에 위판장을 개장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사진> 선유도위판장(630㎡)은 정부 보조사업으로 건립돼 활어와 선어의 위판이 이뤄진다. 위판장 개장으로 군산지역 섬에서 잡힌 꽃게와 주꾸미를 비롯한 수산물이 군

산시 비유항 위판장까지 이동하던 시간과 유통비용이 줄게 됐다. 김광철 군산시수협 조합장은 개장식에서 "선유도위판장 개장으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돼 어업인 소득증대가 기대된다"며 "어촌계 수산물식센터와 연계해 섬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순창군, 소상공인 음식점 그릇 교체 최대 250만원 지원

순창군은 1억원을 투자해 소상공인의 그릇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최저임금 상승과 정주인구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또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음식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이다. 음식점에서 기존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그릇을 친환경 그릇으로 교체할 시 구입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순창=정영근 기자 jyg@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세울터건축사사무소(주)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상담후 결정
- 문의. 010-6834-7400